『탈경계 인문학』제3권 3호 (2010, 10): 05-27

접두어 'trans-'의 인문학적 함의 - 탈경계 인문학Trans-Humanities 연구를 위한 개념 고찰을 중심으로

조윤경

1. 들어가는 말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경계들을 넘나들며 살고 있으며, 세계화의 맥락에서, 또한 서로 다른 문화와 온갖 분야에서 상호작용과 혼합이 이뤄짐을 목격하고 있다. 특히 역설적이게도 국경 등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맞닿은 지점, 즉 경계가 그어진 지점에서 종종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을 발견하게된다. 경계는 권력의 차원을 드러냄은 물론이요, '지각'의 차원, '미학'의차원, '창조'적 차원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2007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출범한 '탈경계 인문학 연구단'이 경계, 탈경계, 횡단, 디아스포라, 혼종성, 유동적 정체성, 트랜스미디어, 포스트휴먼 등의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주제들에 있어서공통되는 점은 다양한 경계들에 의해 선험적으로 구획된 서로 다른 두

조윤경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HK교수

지역들, 존재들, 사유들의 경계가 무너지는 지점에 주목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경계의 이편과 저편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구분지어 왔던 것이 실상은 명확히 구분될 수 없다는 자각이 함의되어 있다.

본 논문은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하지 않는(혹은 못한) 경계(혹은 탈경 계) 지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트랜스(trans)'라는 접두사가 여러 개념들과 결부될 때 현 문화 에 시사할 수 있는 인문학적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접두어 'trans'는 가 로지르고 초월하고 경계를 통과하는 과정을 지시한다. 동사의 접두어로 서의 트랜스는 전이하고(transfer), 초월하고(transcend), 침투하고 (trespass), 위반(transgress)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 의 요인들이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닐뿐더러, 경계들도 단지 민족국가의 가시적인 경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로셀라 페라리(Rossella Ferrari)는 "현대 예술과 미디어 생산에서 '트랜스'한다는 행위는 단지 지 정학적 과정이나 재정적 흐름과 관계되는 것뿐만 아니라, 초문화적 만남, 초텍스트적 교차, 그리고 초매체적 연결에 관계된 구체적인 움직임들의 다양성을 포괄한다"(55)고 지적한다. 독립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접두사 '트랜스(trans-)'는 '트랜스컬추럴리티(transculturality)', '트랜스미디얼 리티(transmediality)', '트랜스아이덴티티(transidentity)', '트랜스디시 플린(transdiscipline)' 등으로 이 시대에 사용됨에 따라 지구지역, 매체, 젠더, 인간, 학문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에 대해 조너선 프리드만(Jonathan Friedmann)같은 학자는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이 이동과 혼성성이라는 개념을 미화하고, 트랜스trans라는 접 사를 붙이는 데 만족하면서 낡은 범주들을 성급하게 부수려든다고 비판 하기도 한다.2) 그 비판의 유효성을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하나

²⁾ Jonathan Friedmann. "Des racines et (dé)routes. Tropes pour trekkers." L'Homme 156. octobre-décembre(2000): 187-206. 니콜 라피에르. 『다른 곳을 사유하자』. 이세진 옮김. 서울: 푸른숲, 2007. p. 238에서 재인용.

⁶ 탈경계 인문학_제3권 3호 (2010년 10월)

로 속단하거나 일방향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진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접두사 '트랜스'가 붙었을때 이 모든 분야에서 갖게 되는 이 시대 패러다임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 인문학적인 함의는 무엇인지를 총체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접두어 '트랜스'의 개념

영미권 어원사전(*The Barnhart Dictionary of etymology*)과 프랑스의 대표적인 언어사전(*Le Robert*)을 참조해보면 trans-의 개념은 대략다음과 같이 크게 세 항목으로 정리된다.

- ① 가로질러, 너머, 통과하여: 'transcontinental'의 예처럼 이는 주로 공간, 지리학적 명사에서 파생된 형용사와 연결된다.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관통하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 ② ~의 저쪽에, ~를 초월하여: 'transcend'의 예처럼 이 세계 너머다른 편이나, 저 너머의 다른 세계를 지칭한다.
- ③ 다른 조건 혹은 다른 사물이 되다 : 'transform'의 예처럼 형태나 속성을 변화시킨다.

즉 요약하면 ①횡단, ②초월, ③변형을 의미하고 있다. 트랜스는 종단 (縱斷)이 아닌 횡단(橫斷)을, 즉 수직적이나 위계적이 아닌 수평적이며 네트워크적인 이동을 지향하며, 통시적이라기보다는 공시적이며 동시대적인 담론을 내포한다. 또한 그것은 본래의 것, 원래의 것, 선험적인 것을 넘어서는 다른 지점을 추구한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미래의 계획을 품고 있는 현재 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는 A를 B로 바꾸는 변형, 변질 등 변화의 의미를 드러낸다. 동사 'transfer'가 드러내

듯 신체성, 물성 등의 '이전'을 의미하며, 유동성, 위치 이동, 정체성과 문화의 전이를 내포한다. 이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 '트랜스'라는 접두어 에 대한 번역을 찾기가 어렵다. '통(通)', '초(超)', '횡단', '탈(脫)'... 등의 번역어는 트랜스의 전체적인 의미의 일부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까닭에 본 논문은 우선 아쉬우나마 '트랜스' 혹은 '탈-'이라고 표기하고 라틴어 어원을 기반으로 한 사전적 정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트랜스의 개념적 성격을 규정해보려 한다.

현 문화 패러다임에서 종종 함께 비교되는 다른 접두사 '인터(inter-)'가 서로 대등한 두 주체의 상호 관계, 쌍방향성을 상정하고, '멀티(multi-)'가 다중심성, 열거, 공존, 상대주의(서로가 서로에게 연루되거나 관여하지 않음)를 지향한다면, 트랜스는 사이버 네트워크라든가 지구촌의 개념 같은 총체적, 메타적 공동체를 상정하고 있으며, 그 안의 요소들이 서로 깊이 간섭, 침투하고 영향을 미치면서 개별 요소들의 변화와 공동체의 아이덴티티의 변화를 함께 일으킨다고 본다. 트랜스는 일종의 단일 혼합체(a single mix)를 상정하는 패러다임이어서, 이 관점에서 경계는 흐릿하고 유동적이며 비정형적이다. 트랜스의 패러다임에서 하나의형태는 하나 이상의 아이덴티티를 품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변환될 수 있다. 이때 변모하게 하는 힘은 내부에서 외부로 향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내부로 향할 수도 있다.

데리다는 접두사 'tr-'가 한 곳을 떠나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 편안한 여행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전이 혹은 변형을 발생시키는 고통스러운 여행의 개념을 내포한다고 본다. 'tr-'를 접두사로 갖고 있는 '번역 (traduction/translation)' 역시 '제거하면서 고양시키며' '하나를 잃음으로써 다른 것이 되는'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Qu'est-ce* 64). 최용호는이러한 데리다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하여 상이한 기호작용들 간의 교류, 횡단, 충돌, 타협 등의 현상을 'trans-semiosis'란 용어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에 의하면 'inter-semiosis'가 의사소통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것

8 탈경계 인문학 제3권 3호 (2010년 10월)

이라면 'trans-semiosis'는 정체성의 위기에서, 의미의 상실에서 그 동기를 찾는다. 나와 세계를 벗어나 타인의 세계에 다가가는 이 여행의 노정에, 달리 말해 상이한 두 기호학적 공간을 횡단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변화가 발생하며, 바로 이러한 '변형'이 'trans-semiosis'의 핵심이라는 것이다.3)

'트랜스'에 내포되어 있는 횡단하고 초월하고 변화하는 프로세스는 통과의례(initiation)의 과정을 내포한다. 통과의례는 결핍된 존재가 길을 떠나는 과정에서 낯선 사람들, 낯선 풍경들을 만나고 위기를 겪고 '죽을고비'를 넘기게 됨으로써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횡단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trans- '가 시공간적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반해 'inter-'는 관계를 중시한다. (...) 이 시공간적 움직임을 연구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위상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trans- '는 이처럼 한 행위자가 여러 공간을 주파하는, 다시 말해 유목민적 방식으로 전개되 는 반면에 'inter-'는 최소한 두 행위자가 각각 상이한 공간에 정착한 가운 데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를 취한다. 'trans-'의 움직임이 이질 성의 불완전한 종합으로 진행되는 반면 'inter-'의 관계는 각각의 동질성 을 유지한 채 전개된다. 'trans-'의 불완전한 종합은 새로운 하나의 통합, 즉 이질성들의 융합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 현상으로서의 변형 을 끊임없이 산출한다. 'trans-'의 변증법이 이처럼 불완전한 이유는 최초 의 이질성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종합의 과정에서 새로 운 형태의 이질성들을 끊임없이 배태하기 때문이다. 'inter-'의 커뮤니케 이션은 각 행위자들의 고유성을 훼손하지 않은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그 결과 각각의 고유한 세미오시스의 동질성이 보존된다. (...) 'multi-'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관계보다 이들의 복수성에 초점을 둔 개념 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multi-'는 다중적인 상태를 기술한다. 'trans-' 나 'inter-'에 비해 이 개념은 따라서 정적이다.

최용호는 trans와 inter의 차이를 한 행위자가 여러 공간을 주파하느냐, 두 행위자가 한 공간에서 소통하느냐의 차이로 보았지만, 트랜스는 반드시 한 행위자만을 상정하지 않는다. 또한 반드시 여러 공간을 주파할 필요도 없다. 여기에서는 공간을 소통의 공간으로 보느냐, 아니면 횡단과 변형의 공간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중요하다.

³⁾ 최용호. 「'Trans-Semiosis'와 독서 행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4(2009): 83-106. 최용호는 이 글(pp. 87-88)에서 접두사 트랜스와 인터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그냥 한 번 떠나보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모험을 떠나는 것, 자신을 찾기 위해 자신을 송두리째 잃는 모험을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니콜 라피에르는 이러한 '넘어섬'을 "왕복이 아니라 편도(op. cit 147)"라고 언급한다. 이러한 횡단과 통과의례의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난다.

3. 횡단과 통과의례 : 트랜스컬처, 트랜스아이덴티티

'트랜스'라는 접두시는 문화적 차이들을 무화하거나 감소시키기를 의 도하지 않으며, 세계화의 그늘 아래,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상실한 채 생산성과 효율성의 원리에 종속된 문화를 창출하지 않는다. '트랜스'라는 접두시는 소비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한 문화의 표준화를 거부하며, 그와 반대로, 위계 없이 열려 있는, 노마드적인 문화의 대화성을 지향하 며 문화적인 상호작용을 활성화한다.

트랜스 인문학⁴⁾ 선언을 한 바 있는 미하엘 앱슈테인(Mikhail Epshtejn)은 '트랜스컬처(transculture)'를 민족, 젠더, 직업 등에 의해 다양하게 구획된 문화의 경계선을 가로질러 발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로 정의한다. 그것은 기존 문화를 낯설게 바라보는 '외재성'의 원칙, '자신의', '본래적인' 문화에서 벗어남 등을 전제로 구성된다. 트랜스컬처는 한 문화 내의 의미적, 기호적 틈새,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을 드러내며, 여러 문화의 교차점과 간극 속에서 새로운 상징적 환경을 창조한다. 앱슈테인에 의하면 트랜스컬처는 문화적 상대주의와 고립성을 전제하는 멀티

⁴⁾ 엡슈타인 인터뷰. 「테크네의 귀환」. 『교수신문』2008.8.25 엡슈테인이 말하는 트랜스 인문학이란 가령 '트랜스언어학'은 인공언어를 생산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자연언어의 수준을 제고하는 학문이 될 것이며, '트랜스미학'은 시학과 미학을 통해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면서 예술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학문이 될 것이다.

¹⁰ 탈경계 인문학_제3권 3호 (2010년 10월)

컬처(multiculture)와 다르며, 자기를 초극해 자기 밖의 입장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타자와 소통하는 트랜스컬처의 관점만이 이념, 종교, 민족 다원화의 시대에 궁극적인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가 다양한 문화들, 즉 이질성들 간의 평화적인 복수성을 강조한다면 초문화주의(transculturalism)는 이질성들 간의 대화를, 상호적인 이해를 지향한다. 이런 의미에서 트랜스컬처 논의는 탈식민주의 및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의 핵심 중 하나인 '혼종성 (hybridity)'의 개념과 밀접하게 닿아있다. 주지하다시피 포스트모더니즘은 로고스와 메타담론의 종식, 자아의 탈중심화, 혼종성 등을 그 대표적인 특징으로 갖고 있다. 데리다와 료타르는 선험적으로 정해진 고정된의미를 거부하고 기표의 유회를 통한 의미의 지속적인 미끌어짐을 강조했다. 료타르는 '일치(homologie)'와 대립되는 개념의 '불일치(paralogie)'를 내세워 규정적이고 권위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으며 보편적인 의도를 가진 담론의 종식을 선언한 바 있다(La condition 전문). 마찬가지로 탈식민주의 논의 또한 혼종성의 개념을 전면화한다. 혼종화과정은 서로 다른 문화들이 지상 위의 낙원처럼 한 공간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다문화주의와 동의어가 아니다. 혼종성은 서로 다른민족들이 한 공간에서 살기 위해 취하는 전략이다.

혼종성은 서로 다른 문화들이 변방에서 항상 교섭, 긴장, 갈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것은 문화적 개념들이나 정체성들의 동화/흡수 혹은 단순한 혼합을 의미하지 않는다. 혼종성은 유토피아적인 비전이 아니다. 그것은 문화 a가 문화 b로 이동함에 따라, 사회-문화적인 주체들이 바라는 바와는 무관하게 혼종화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인해 개인들이한시적인 정체성, 끝없는 긴장, 갈등에 직면하게 되는 우리 세계의 사회-문화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혼종성은 탈문화적 공간 안에서 타인과 자신, 알려진 것과 미지의 것, 이질성과 동질성, 본질주의와 패권주의가 교섭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편안함이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긴장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혼종화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트랜스' 담론 또한 무엇인가를 궁극적으로 뛰어넘거나 극복하여 편안한 해결점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긴장과 갈등을 수반한 채 이질적인 것들이 교섭하고 통과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탈문화성(transculturality)은 문화적 기원이나 고유의 정체성에 의해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에 속한 다른 정체성, 다른 언어에속하여 이질적인 영역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문화적 전통들이나 그 단편들에 관계된다. '트랜스'는 일방향적이지 않으며, 끊임없는 '정착되지 않은' 이동을 가져오고, 영역의 이탈과 새로운 생성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들뢰즈/가타리의 '리좀' 개념으로 조명할 수 있다. 들뢰즈/가타리가『천 개의 고원』에서 식물의 상징을 사용해 표현한 '리좀(rhizome)'은 하나의 망이며, 서로 얽혀있고, 분화되어 있으며, 상위-코드화를 허용하지않는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한 직물을 의미한다(서문). 여기에서 나타난리좀의 대표적인 특징은 지점과 노선들의 자의적인 접속이라는 것, 단일성 혹은 복수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비결정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그것은어떤 것의 재현이나 복사가 아닌 일종의 지도로 어떤 것을 끊임없이 재영토화, 탈영토화한다.

트랜스 담론은 세상을 교차적 형태, 횡단적 형태 속에서 '리좀'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이것은 호미 바바가 말한 바, 문화적 차이에 대한 교섭의 과정이다. 그것은 타인에게 나를 여는, 긴장을 간직한 매우 복합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타인을 배척의 시선이 아닌 타자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론적이며 방법론적인 과정으로서 혼종성의 하위 시스템을 이루는 '횡단성'이라는 용어는 "서로 다른 복합성들 안에서 관계들을 맺게하는" '잠정적인' 작용이며, "다양한 형태들, 교환, 경쟁, 소통, 교정, 인지, 정의를 가능하게 한다."5) 횡단성의 핵심에는 "원칙의 부재"가 있으며, 그것은 선험적으로 부여되었거나 의도적으로 구상된 어떠한 법칙에도 굴

12 탈경계 인문학 제3권 3호 (2010년 10월)

복하지 않는 리좀적인 구조를 의미한다.

한편 집멜은 의미론적 차원에서 '사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한다. '사이'는 관계의 상호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사회학적 결합을 좀더 강조하는 공간적인 중재를 가리킨다. "상호작용은 지금까지 무에 지나지 않았던 빈 공간을 '우리를 위한' 어떤 것으로 만든다. 상호작용은 공간을 채우고, 공간은 상호작용을 가능케 한다."(라피에르 50재인용) 탈식민주의 비평가 호미바비는 이러한 공간을 '제 3의 공간'이라 명명한다. '제 3의 공간'이란 문화적 차이와 복수성이 교섭되는 발화 장소를 의미한다. 그것은 열린 공간이며 점유되지는 않았지만 분명 거주자가 있는 공간이다. 그것은 역사와 언어의 가장자리, 인종과 부류의 경계에 있는 통행과 혼합의 장소다. 제 3의 공간을 통과하는 사람은 호미바바의 개념에 의하면 '정주하지 않는 자(unhomeliness)'이이며, 니콜 라피에르의 개념에 의하면 '횡단자(traversier)'가이다.

민가영은 '트랜스' 개념을 가져와 '이주'를 횡단을 통한 주체 전환의 문제로 접근한다. 그에 의하면 "이주는 단순한 이동이 아닌 횡단을 통해 이질적이고 모순적인 것들이 관계성을 형성하며 이는 단순히 '선택적 주 체', '전략적 주체'에 국한되지 않는 '전환되는 주체'의 문제로 넘어간다." (「트랜스(trans)」10) '전환되는 주체'의 개념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트

⁵⁾ Welsch, Wolfgang. Vernunft. Die Weitgenössische Vernunftkritik und das Konwept der transversalen Vernunft. Francfort-sur-le-Main: Suhrkamp, 1996. p. 761. Toro, Alfonso de. Epistémologies 'Le Maghreb'. Paris: L'Harmattan, 2009. p. 19에서 제인용.

⁶⁾ 호미바바는 '집없는homeless'이 아닌 '고향을 떠난 듯 낯선unhomely'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마찬가지로 노숙자가 아닌 정주하지 않는 자에게 의미부여 한다. 이는 이민자, 의식 있는 지식인, 망명한 예술가 등을 지칭할 수 있겠다. 그는 "고향을 떠난 듯한 낯설음unhomely의 경험은 고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며, 사회적 삶을 사적/공적으로 분리하는 친숙한 개념에 안이하게 순응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호미바바. 『문화의 위치』p. 41.

⁷⁾ 니콜 라피에르, p. 171. 횡단자는 "사회학적으로 상이한 세계를 넘나들며,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도 분열되지도 않은 채 왕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조윤경 접두어 'trans-'의 인문학적 함의 13

랜스는 한 군데 소속되어 있지 않고, 두 군데의 합집합도 아닌 주체를 상정한다. 이러한 주체는 어디에도 완전히 정착할 수 없는(혹은 정착하 지 않는) 주체이며, 늘 한 곳에서 또 다른 한 곳으로의 이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경계에 다층적으로 걸쳐 있다.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정체성은 단일한 정체성이 아니라 '하이픈으로 연결된 정체성(hyphenated identity)'이다. 즉 이중 아이덴티티, 민족문화 정체성을 의미한다. 하이픈의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를 묻는 것은한 문화,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문제를 질문하는 것이다. 하이픈은 문화 사이의 연결인 동시에 갈등, 긴장, 권력관계 등을함께 내포하고 있다. 하이픈으로 연결된 정체성은 또한 애초에 경계선이쪽 저쪽으로 뚜렷하게 구분된 두 세계가 있었다는 전제를 거부한다. 애당초 '원조'란 없다. "이동 혹은 이주가 문화적 의미작용을 만들어낸다. 뿌리는 언제나 도로에서 생긴다. 모든 것이 통행, 만남, 대립, 상호작용의범위 안에 있다"(라피에르 236)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팔로 알토(Palo Alto)는 정체성이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된 맥락 속에투사된 자아의 일련의 이미지들을 의미한다고 언급한다. 8) 이제 중심/주변의 관계를 둘러싼 이분법적 패러다임은 하위주체들에게 열린 네트워크의 역동성으로 그 패러다임을 이동한다.

4 접촉과 변형 : 트랜스미디어

혼종성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트랜스미디어' 또한 서로 다른 미디어들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즉 미디어의 혼합이나 단순한 형태의

⁸⁾ Louis Hébert, Lucie Guillemette. *Intertextualité, interdiscursivité et intermédialité*. Québec: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2009. p. 236에서 제인용.

¹⁴ 탈경계 인문학_제3권 3호 (2010년 10월)

축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조화적인 풍요로운 과정으로 귀결되는 미학적인 과정과 전략을 의미한다."(Toro 32) 상호매체성이 이분법적 원리, 미메시스적 질서를 가진 형태를 의미한다면, 탈매체성은 다차원적이며 반-미메시스적인 형태를 의미한다. 또한 탈매체성은 서로 다른 미디어시스템들이 그들 사이에 미학적인 경쟁을 할때, 서로 다른 미디어들이자신들에 대해 말할때, '메타매체성'을 형성할때를 의미한다. 탈매체성은 특히 서로 다른 두 매체들 간의 대화적인 복수성에 방점을 둔다.

이봉희와 오승환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트랜스미디어를 정의내리고 있다. "과거의 샤먼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영적 세계와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가 가능했던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상 세계와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가 가능한 미디어를 트랜스미디어라 정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496) 이는 '황홀경, 초월'을 의미하는 '트랜스trance'와 '초, 통, 횡단'등을 의미하는 '트랜스trans'를 동일시한 결과로 적확한 정의라 볼수 없다.

한혜원은 MIT의 미디어 연구가 헨리 젠킨스의 글을 인용하여 트랜스 미디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젠킨스는 트랜스를 컨버전스의 의미, 즉 융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게임의 스토리텔링에서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를 넘나들면서 분석하고자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52-58) 그런데 트랜스와 컨버전스가 상당히 유사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엄밀히 말해 두 개념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트랜스가 융합의 의미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그보다는 '전이', '전환', '횡단'이라는 의미를 더욱 더 많이 갖고 있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서로 다른 영역이 '결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이'하여 그 성격과 내용을 '바꾼다'는 의미를 더욱 강력하게 내포한다.

트랜스미디어의 예는 소니에릭슨 휴대폰 CF 동영상이 잘 보여준다. 9 한 소녀가 예쁜 다람쥐를 보고 그것을 핸드폰으로 찍고, 자신이 아는 다

른 사람에게 전송한다. 게임 디자이너였던 그는 이것을 보고 다람쥐가 주인공인 게임 컨텐츠를 만들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한다. 로봇 공학자였던 그 지인은 이를 보고 통통 튀어오르는 사이버 다람쥐 로봇을 만들고, 이를 본 패션 디자이너는 다람쥐의 줄무늬 패턴과 튀어오르는 다람쥐 로봇에 착안한 창의적인 패션쇼를 하게 된다.

이 광고는 무엇이 뜀틀대가 되어 상상력이 비약하고 중폭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창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발신자의 의도를 수신자가 어 떻게 잘 읽어내는가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어떻게 '잘못 읽어내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정답을 상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얼마든지 자유로운 생각들이 소통하면서 유영할 수 있다. 우리 시대에는 장르나 매체, 직업이나 세대라는 선험적으로 구획진 경계를 가로지르고, 뛰어 넘고, 그리하여 기존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바꾸는 '트랜스'의 창조 기제가 활발히 실험되고 있다. 그 관계는 인터미디어의 쌍방향성보다 훨 씬 유연하고 느슨한 관계이다.

트랜스미디어는 인터미디어와의 관계 하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하위 범주에 들기도 하고 분리하여 개념설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메슐랑(Méchoulan)은 잡지 『인터미디얼리티(Intermédialités)』를 소개하는 글에서 상호매체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상호매체성은 텍스트와 담론이 단지 언어적 질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물리적 실현 매체, 전달 방식, 코드의 학습, 실물교육들과도 연관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커뮤니케이션의 이러한 물질성들은 의미와 지시대상에 관한 연구에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상징물들, 생각들은 헤아릴 수 없는 허공 속에서 떠도는 것도, 또한 그 구체적인 구성물들과 무관하게 정신적인 구조로 이뤄진 것도 아니다(Hébert & Guillemette 1 재인용).

⁹⁾ http://www.youtube.com/watch?v=UnL-BRZ8rMg&hl=ko

¹⁶ 탈경계 인문학 제3권 3호 (2010년 10월)

상호매체성이 언어적 질서 너머 다양한 매체들의 질서 속에서 의미와 지시대상 간 연관관계를 중시한다면, 탈매체성은 그 관계가 어떻게 '전이' 되고 다른 맥락으로 어떻게 '변형'되었는가에 초점을 둔다. 이리나 라제 프스키(Irina Rajewsky)는 상호매체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미디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들을 위한 일반적인 용어이다. '상호매체적'이란 미디어들 사이에서 경계횡단을 통해 해야만하는 그러한 배치/지형들을 지칭한다. 또한 인트라미디어적 현상과트랜스미디어적 현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때 트랜스미디어적인 것은 미디어 형태를 구별된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 반면, 인터미디어적인 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인정된 것을 일시적으로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46).

이에 의하면 상호매체성(intermediality) 안에 인트라(intra)와 트랜스 (trans)가 포함된다. 즉 좁은 의미의 상호매체성은 inter가 intra의 의미를 갖고 있고, 넓은 의미의 상호매체성은 inter가 intra와 trans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트랜스미디어적인 것이 미디어 형태를 구별된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대목이다. 이는 '트랜스'라는 접두어가 붙은 개념들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워너 울프 (Werner Wolf) 또한 트랜스매체성을 인터매체성의 특별한 형식으로 간주하면서, 이는 서로 다른 미디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지칭하며, 그 기원이 한 가지 특별한 매체에서 비롯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82). 그에 의하면 최근에는 비문학적 요소가 문학 연구의 안에 들어오는 것만큼이나 문학적 요소가 비문학 연구에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내러티비티', '상호텍스트성' '미장아빔' 등은 문학연구에서 비롯된 용어이지만 현재 미술사나 영화 연구에서도 사용되고 있다.10)

¹⁰⁾ Wolf, Werner. "Metareference in the Arts and Media." International

트랜스미디얼리티는 주어진 인공물들과 작용하는 다른 미디어와 의 관계들(다매체성의 형태 혹은 상호매체적 지시의 형태)과 구별되며, 또한 상호매체적 치환(소설의 영화화 등)과도 다르다. 그것은 특정한 매체가 아닌 -혹은 아니라고 간주된- 일반적인 현상을 다룬다. 즉 하나의 매체 이상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주어진 시기에 여러 미디어들에 의해서 공유된 역사적 현상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18세기 감수성을 특징짓는 장엄한 표현(그것은 드라마, 소설, 시, 오페라, 음악, 시각 예술에서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 이상의 매체에 나타나는 규칙적인 현상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프레임화된 구조들(문학 장르, 영화, 회화, 음악에서조차 관찰될 수 있다), 묘사성(이러한 매체들 모두에 공유된다) 혹은 서사성(트랜스미디어적 개념을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을 들 수 있다.11)

이를 정리하면 상호매체성과 탈매체성은 모두 서로 다른 것들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것들이 횡단, 전이, 위반을 통해어떻게 기존의 경계를 바꾸면서 전체적인 지형도를 그러내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서로 다른 것들이 공존, 변형, 투쟁, 존속해 있는하이브리디티의 지형도이기도 하다.

5. 나가는 말: '트랜스디시플린' 그리고 '탈경계 인문학'

Symposium of Universität Graz, may 22-24, 2008, p. 3. 11) Ibid,

¹⁸ 탈경계 인문학 제3권 3호 (2010년 10월)

'탈경계 인문학'은 인문학 본연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그 확장된 지형을 탐사하면서 인문학을 새롭게 재구축하고자 2007년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한국문화연구원에서 출범하였다. 탈경계 인문학은 학문적으로 끊임없이 문제적으로 제기되는 수많은 장소들을 연구할 뿐 아니라 문학, 역사, 철학, 사회학, 미술사, 인류학, 첨단기술, 젠더학 등을 가로지르며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구축된 기존 지식들 너머 혹은 사이의 공간을 탐색한다. 그런데 학문 분과들 사이의 경계를 넘고, 지식의 영역을 확장하고, 경계에서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또한 그만큼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하다.

탈경계 인문학은 규정되지 않은 영역을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뚜렷한 방법론을 제시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것이 동시에 이 학문이 갖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한 장르, 한 분야에 국한된 학문이라는 폐쇄성을 넘어 '경계'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끊임없이 문제적으로 제기되는 수많은 장소를 실험적인 방식으로 탐사할 수 있고, 고정된 분야의 경계를 흔들고 밀고 당김으로써 새로운 영역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탈경계 인문학은 서로 다른 영역의 교차점(intersection)에 주목하고 있다. 두 영역의 교차점을 연구함으로써, 두 영역을 따로 연구했을 때와는 다른 시각으로 이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텍스트와이미지에 관계된 연구가 아니라 textimage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 교차 지대는 interférences(간섭, 개입, 충돌, 저촉)의 공간이며,여기에서 의미있는 새로운 창조가 촉발되기도 하고,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경계'는 '탈경계'이기도 하며, '접점'은 탈경계 인문학의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영불해협은 장벽이 아니라 연결선이었다"는 귀스타브 코엥의 말은 '경계지점'이 단절과 결합이 혼재된 가능성의영역임을 알려준다. 또한 '탈경계'는 가장자리, 변두리, 즉 중심으로 자리한 것의 경계를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면이 아닌 이면, Aside가 아닌 B side, 다수가 아닌 소수 혹은 소수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사실 트랜스디시플린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1986년 베네치아 선언문을 통해 촉구되었다. 이는 여섯 개의 항목으로 이뤄졌으며, 16명의 참석자들이 서명한 선언문인데, 특히 3항에 주목해보자.

총괄화 계획, 사유의 닫힌 체계, 새로운 유토피아를 거부하는 동시에 우리는 '정밀'과학, '인문'과학, 예술, 전통 사이의 역동적인 교환 속에서 진정한 탈학문적 연구(recherche véritablement transdisciplinaire)가 긴급함을 인정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탈학문적 접근은 (이미) 좌·우뇌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의 뇌 속에 새겨져 있다. 자연과 상상계, 우주와 인간을 연결하는 연구는 우리를 좀 더효과적으로 실재에 접근시켜주며, 우리 시대가 직면한 도전을 한층 잘 감당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Jaigu 10).

베네치아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이 선언문에 서명했던 카즈나브와 니콜레스쿠에 의하면 '탈학문성(transdisciplinarité)'은 다음 두 가지 함의를 강조하는 용어다. 첫째, 탈학문성은 모든 학문 너머에 존재한다. 둘째, 탈학문은 모든 학문을 관통하고 있다(Cazenave & Nicolescu 전문). 여기에서 '관통하고' '넘어서는' 안팎의 시점을 모두 공유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이는 변화를 중시하면서 '넘어서'와 '가로질러'라는 모순적인두 항목을 안고 있는 트랜스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그럼 그 구체적인 방법론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 도정일과 최재천의 『대담』에는 '트랜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 부분이 있다.

최재천 : 이제 단순히 학제 '간(inter)' 연구로는 안됩니다. 여러 학제를 단순히 통합하는 '멀티(multi)' 학문으로도 부족합니다. 이제 '인터', '멀티'라는 단순한 조합을 넘어서 '트랜스 (trans)'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과 자연

20 탈경계 인문학 제3권 3호 (2010년 10월)

과학뿐 아니라 모든 학문분과가 활발하게 소통하고 서로 굳게 닫은 빗장을 열어젖힐 수 있는 새로운 학문의 공간이 탄생해야 합니다.

도정일: 학문영역들끼리의 소통과 울타리 넘어서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든 '멀티'든, 혹은 '트 랜스'든 간에 학문 사이의 경계를 허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성이 중요한 학문 자체의 성격 때문에 경계선 넘나들기는 원천적인 한계를 갖고 있죠. 도정일이 최재천으로 둔갑할 수는 없고 그 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트랜스'란 한 사람의 연구자가 다수의 전공영역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야의 연구를 살찌우기 위해서, 혹은 어떤 연구 대상에 대한 더 나은 통찰에 이르기 위해서 인접 학문이나 다른 학문의 성과들을 부단히 조회, 참조하고 원용하는 것일 때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도정일 외 94)

도정일의 대답에서 연구의 심화를 위한 방법론이라는 점은 수긍하지만, inter와 multi를 넘어선 trans의 방법론은 도정일이 말하는 '조회' '참조' '원용'의 수준을 넘어서 한 분야의 아이덴티티가 송두리째 변하는 체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이론상 단순한 넘어섬 정도가 아니라일종의 위반이다. '트랜스디시플리너리(transdisciplinary)' 인문학이 되려면 한 학문과 다른 학문이 만나 방법론의 섞임, 분야의 섞임(한 학자가두 가지를 섞든, 혹은 두 분야 이상의 학자들이 협업을 하든 간에) 그자체를 넘어서 학문들의 유동성과 다중의 아이덴티티를 의식하고, 동종혹은 유사종족들 간의 교배가 아니라 확실한 이종교배를 통해 스스로송두리째 변하면서 인문학의 외연을 확장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념, 의미와 담론의 차원에 천착했던 기

존의 방법론에서 벗어나 의미의 차원, 기술의 차원, 현상의 차원을 넘나들면서 그 연결지점들에 천착하며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사실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떠돌아다니는 지식인은 희귀했다. 앞에서 인용한 니콜 라피에르의 지적처럼 트랜스 담론의 시대 지식인들은 몸으로이동하는 '횡단자'들이 되어야 하며, '탈경계 인문학' 또한 이렇게 체화된인문학이 되기를 희망한다.

예컨대 매체미학 분야의 연구를 함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들은 이에 관련된 기본 개념,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문제의식, 혹은 틀을 가지고 그간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규명해왔다. '횡단'과 '치환'이 트랜스의 키워드라면, 트랜스 매체미학은 어떤 새로운 매체현상에 대해서 기존의 '개념'이나 '틀'을 세워 그 잣대로 끼워 맞춰 바라보려 하기보다는 문제제기와 질문을 통해 실질적인 의미를 탐색해나가면서 기존의 개념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보는 학문이 되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담론 차원의 개념이나 틀로 매체현상의 의미를 끼워맞춰 보는 것이 아니라, 매체현장 리서치,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나오는 현장의 용어나 개념들을 숙지한 후 그것을 인문학의 시각에서 재정의(치환)하고, 기술적 메커니즘을 현장에서 연구하며, 이를 1차 개념적 의미와 대질시켜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트랜스' 공간은 '집'이 아니라 '길'을 상정한다. 머물러 있는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동하고 접촉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과의례의 과정을 상징하는 '트랜스' 담론이 지배하는 우리시대의 문화, 자아, 학문, 매체 등은 자신을 찾기 위해 자신을 잃는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 그것은 학문의 경계와 영토와 국경선 사이에서 벌어지는 과정적 성찰의 모험이다. 트랜스 담론에서의 초월은 형이상학적 초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태도로부터 다른 태도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트랜스 담론은 시대와 문화를 읽고 이를 적극적으로 바꾸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2 탈경계 인문학_제3권 3호 (2010년 10월)

참고문헌

- 니콜 라피에르. 『다른 곳을 사유하자』. 이세진 옮김. 서울: 푸른숲, 2007. 도정일, 최재천. 『대담』. 서울: 휴머니스트, 2005.
- 마샬 맥루한. 『미디어의 이해』. 박정규 옮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민가영. 「트랜스(trans) 개념을 통한 저소득층 십대 이주 여성의 반복적 이주에 관한 연구: 몽골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5.4 (2009): 5-39.
- 박영숙, 호세 꼬르테이로. 『트랜스휴먼과 미래경제』. 서울: 교보문고, 2006. 엡슈타인 인터뷰. 「테크네의 귀환」. 『교수신문』2008,8,25
- 이봉희, 오승환. 「트랜스미디어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8.4(2007): 489~497.
-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천 개의 고원』. 김재인 옮김. 서울: 새물결, 2001. 최용호. 「'Trans-Semiosis'와 독서 행위 - 『돈키호테』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 과 비평』44.13.3(2009): 83-106.
- 한혜원.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서울: 디지털컨텐츠, 2006.
- 호미바바. 『문화의 위치』. 나병철 옮김. 서울: 소명출판, 2002.
- Cazenave, M et B(dir) Nicolescu. *L'Homme, la science et la nature, Regards transdisciplinaire*. Aix-en-Provence: Le Mail, 1994.
- Déotte, Jean-Louis, Froger, Marion, et Silvestra Mariniello. *Appareil et intermédialité*. Paris: L'Harmattan, 2007.
- Derrida, Jacques. *Qu'est-ce qu'une traduction "relevante"?*. Paris: L'Herne, 2005.
- Ferrari, Rossella. "Transnation/transmedia/transtext: border-crossing from screen to stage in Greater China." *Journal of Chinese Cinemas* 2,1(2008): 53~65.
- Hébert, Louis, et Lucie Guillemette. *Intertextualité, interdiscursivité et intermédialité*. Québec: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2009.
- Jaigu, Y.(préf.). La Science face aux confins de la conaissance. La Déclaration de Venise. Paris: Félin, 1987.
- Lyotard, Jean-François. *La condition postmoderne : rapport sur le savoir*(포스 트모던의 조건). Paris: Minuit, 1979.

Rajewsky, Irina. "Intermediality, intertextuality and remediation: a literacy perspective on intermediality." *Intermédialités* 6(2005): 43~64. Toro, Alfonso de. *Epistémologies 'Le Maghreb'*. Paris: L'Harmattan, 2009. Wolf, Werner. "Cross the Border-Close that Gap: Towards an Intermedial Narratology." *European Journal of English Studies* 8.1(2004): 81~103.

24 탈경계 인문학_제3권 3호 (2010년 10월)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Prefix "Trans-": Focusing on Conceptual Consideration for Trans-Humanities

Cho, Yunkyung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e prefix "trans" for our current culture when the word is associated with different concepts, as a way of identifying a variety of problems and possibilities that occur at the boundary (or transcending the boundary) that do not or cannot belong anywhere else. The prefix "trans" refers to the process of crossing, transcending, or passing through a boundary. As a prefix of a verb, it means the act of transferring, transcending, trespassing, and transgressing. But the factors that make up such acts are not always physical, and the boundaries do not necessarily refer to the borders between nations.

The prefix "trans-," which cannot be used alone, presents a new paradigm for the domains of glocalization, medium, gender, human nature, and academics by being added to words like "transculturality," "transmediality," "transidentity," and "transdicipline."

The prefix "inter-," often compared with "trans-" in the current cultural paradigm, has the connotation of a mutual relationship

and two-way communication between two equal entities, and another prefix, "multi-," implies multi-centered, enumeration, co-existence, and relativism (not involved in or intervening in others' affairs). By contrast, the assumption that lies behind "trans-" is a holistic, meta-community, such as is expressed in the concepts of cyber network and global village, where mutual involvement, intervention, infiltration and influence lead to the changes in individual entities and in the identity of the community. This identity is not a single identity, but a "hyphenated identity." In other words, it is a double identity that refers to ethnic and cultural identity. The hyphenated identity also rejects the premise that there are two realms that are separated by a border. Now, the dynamics of networks open to sub-entities are shifting from the dichotomous paradigm that guided think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er and periphery.

The process of crossing, transcending, and changing that lies behind "trans-" implies a process of initiation. The space for "trans" does not mean a "house" but a "road." It does not point to a private space to stay and settle, but to a social space characterized by mobility, interaction, and change. The culture, ego, academics, and media of our time, a time dominated by a discourse of "trans" that symbolizes the process of initiation, force one to risk losing one's self in order to find one's self. It is a venture involving a process of introspection that takes place at academic boundaries and at territorial borders. The transcendence in the discourse on "trans-" refers not to metaphysical transcendence, but to a change from one attitude to another. Only for this reason can "trans-" serve as another perspective allowing us to gain insight into our time and culture.

26 탈경계 인문학 제3권 3호 (2010년 10월)

주제어: 트랜스(trans-), 탈경계 인문학(Trans Humanities), 트랜스컬추럴 리티(transculturality), 트랜스미디얼리티(transmediality), 트랜 스아이덴티티(transidentity), 트랜스디시플린(transdicipline)

> 논문제출일: 2010. 08. 30 심사완료일: 2010. 09. 15

> 게재확정일: 2010. 09. 15